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 제작

2022
희이잉

안무·연출 송주원

2022.12.02-12.04

대학로극장 퀴드 첫 번째 제작

2022 **희이임**

일시

2022. 12. 2 (금) - 12. 4 (일)

금 | 19:30

토 | 15:00 19:30

일 | 14:00 18:00

장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

안무·연출

송주원

제작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 제작

2022

휘잉

hwi-i-ing

안무·연출 송주원

2022.
12.02
-
12.04

금 19:30

토 15:00

19:30

일 14:00

18:00



QUAD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2022 휘이잉 : 마을에 흐르는 바람, 흐르는 안녕. 마을에는 어떤 바람이 흐르고, 그 바람은 어떻게 움직일까?

좁고 구불구불하고, 위로 아래로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어져 있는 골목길을 따라 가다보면, 낯선 존재들의 삶과 마주친다. 그곳에서 느리고 유연하게 어슬렁거리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던지는 고양이들의 세계를 만나고, 하늘 위로 펼쳐지는 빨래와 낡은 대문과 돌담의 낙서를 보며 누군가의 삶의 온기를 느낀다. 순간, '휘이잉' 바람이 분다.

휘이잉은 바람이며 마을이다. 마을에 흐르는 바람(wish)은 움직이는 바람(wind)으로 존재한다. 마을의 장소·사물·사람은 저마다의 바람으로 안녕을 기원한다. 보광동과 한남동을 넘나드는 바람은 골목에 굽이치고 언덕을 오르내리며 마을의 걸음이 되고, 숨이 되어 일상을 살아간다. 어떤 바람(wish)을 바람(wind)에 실려 보낼까? 안녕을 기원하는 바람이 오늘도 모세혈관처럼 얹혀있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마을로 흐른다. 휘이잉~휘이잉~

송주원은 영상과 무대를 통해 마을을, 마을의 바람을 안무한다. <휘이잉>에서는 모두가 퍼포머다. 블랙박스, 영상, 무대 그리고 그 안의 장소·사물·사람은 퍼포머로서 마을에 흐르는 바람(wish)과 움직이는 바람(wind)을 담은 형식이자 그 자체로 작품의 내용이 된다. 안무가는 도시 공간과 영상을, 영상과 무대를 거듭 겹쳐 무대화하며, 보광동과 한남동의 실제 장소를 영상과 무대 위에 안무된 장소로 전환한다. 안무가의 눈은 카메라의 눈이 되고, 바람의 걸음과 숨은 편집의 리듬이 된다. 현실의 시공간을 안무한 영상은 블랙박스의 시공간에 재 안무되어 관객과 마주한다. 울퉁불퉁한 삶이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 흐르는 마을과 마을의 바람이 엮인 매듭, 바람과 바람이 만나는 마디가 장면이 되어 관객을 만난다.







바람(wish)이 바람(wind)이 되어 흐르기를

<2022 휘이잉>은 마을에 흐르는 바람과 안녕에 대한 이야기로, 보광동과 한남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마을버스를 따라 맴돌고, 우사단로를 가로질러 장문로와 대사관로를 오가면서 마을에 흐르는 바람(wish)이 움직이는 바람(wind)으로 자리한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 마을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바람이 보이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바람이 들리는 작품을 상상했다.

지난 10년간 도시공간 무용프로젝트 '풍정.각(風情.刻)' 시리즈를 댄스필름과 장소 특정적 퍼포먼스의 형태로 선보여 왔다. 이번이 열다섯 번째 작품인데, 도시 공간, 영상과 무대를 중첩한 블랙박스에서 관객과 만나게 되었다. <휘이잉>을 통해 마을을 무대, 블랙박스로 가져와 보고 싶다는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다. 나의 작업은 몸이 닿은 자리에 흐르는 삶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내가 만난 장소와 이곳을 지나는, 살아가는 사람의 몸과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을 이야기 하게 되었다.

마을을 블랙박스로 불러온다는 건 마을의 장소·사물·사람 모두가 흐르는 바람(wish)이자 움직이는 바람(wind)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광동과 한남동을 넘나드는 바람은 골목에 굽이치고 언덕을 오르내리며 마을의 걸음이 되고, 숨이 되어 일상을 살아간다. 관객이 마을의 장소·사물·사람이 흐르는 블랙박스에서 그 걸음과 숨을 담은 무대와 영상을 통해 몸으로 함께 경험하기를 상상하고 있다.





<휘이잉>은 2018년 처음 시작되었다.

보광동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하던 중에 이곳이 곧 재개발로 사라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라져가는 마을을 기록하는

작업을 연속해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의 몸이

기울었다. 보광동과 한남동 사이 담벼락을 따라 걷다가

마을의 경계를 획 뛰어넘는 고양이와 마주쳤고, 고양이만 자유롭게 넘을 것 같았던 날카로운 경계는 마을을 다닐수록 점점 낮아지고, 경계 안의 삶과 그 속살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졌다. 첫 시작은 기도가 움직이는 풍경을 포착하는 작업이었다. 마을의 경계 안을 흐르는 9개의 움직이는 기도는 9개의 영상 채널이 되었다.

2021년 9개 채널의 댄스필름의 첫 번째 무대화가 대학로극장 퀴드의 무대기술 테스트 공연으로 시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도시 공간과 영상, 블랙박스가 중첩되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2021년에는 '도저히, 살아내기에 대하여, 간절히'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었다. 두 마을을 가로지르는 경계에 집중했으며, 다문화, 다종교, 재개발이슈가 있는 마을, 낯설고 거친 느낌, 특유의 냄새를 따라 걸으며, 우사단로를 중심으로 보광동을 따라 흘러간 작업은 마을의 골목과 사람들을 둘러싼 이야기로, 기도로 옮겨갔다.

2022년 <휘이잉>은 새로운 부제를 달았다. '마을에 흐르는 바람, 흐르는 안녕'이다. 작년에 타인의 시선으로 마을 안에서 밖을 바라보며 경계를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면, 올해는 나 스스로 고양이가 되고자 했다.

자유롭게 경계의 안과 밖을 넘나들다 보니, 어느새 경계는 사라지고, 마을 안의 삶이 보였다. 속살과 주름, 그 사이를 오가고 흐르는 바람의 부드러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우사단로, 대사관로, 장문로의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 마을의 언덕과 계단을 오르내리며 저마다의 울퉁불퉁한 삶을 바라보고, 저마다의 바람이 어떻게 마을 사이를 오가고 있는지 찾아보려 한다.

최근 보광동과 한남동 근처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참사 며칠 전까지도 우리 팀은 그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어떤 위로와 애도의 바람을 흐르게 할 수 있을지도 고민했다. 삶에 슬픔이 덮쳐도, 우리는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혼자 슬퍼하고 두려워하기 보다는 함께 마을에 흐르는 바람과 안녕을 몸과 몸으로 만나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무·연출 송주원



안무·연출 | 송주원

송주원은 안무가이자 댄스필름 감독이다.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신체와 매체의 교차점을 안무하는 도시공간 무용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다. 시간을 축적한 도시의 장소에 주목해 그 장소에 투영된 신체가 말하는 삶에 대한 질문을 특정 장소의 리서치와 퍼포먼스, 전시, 상영의 방식으로 구현한다. 커뮤니티 무브먼트 그룹 '일일댄스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작업으로는 열 다섯편의 <풍정.각(風情.刻)>시리즈, <20▲△(이십삼각삼각)>, <반성이 반성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환.각(幻.刻)> 등이 있다.

출연진



권이은정



김단우



김서현



김윤하



남기희



다니엘 아히폰
Daniel Ahifon



모지민



배효섭



오진민

권이은정, 김단우, 김서현, 김윤하, 남기희, 다니엘 아히폰, 모지민, 배효섭, 오진민
윤세영, 이진형, 이채은, 이현석, 정재필, 정채민, 조명희, 한빛 그리고 미카엘 아히폰-리



윤세영



이진형



이채은



이현석



정재필



정채민



조명희



한빛



미카엘 아히폰-리
Michael Ahifon-Lee







만드는 사람들

안무·연출 송주원

출연 권이은정, 김단우, 김서현

김윤하, 남기희, 다니엘 아히폰

모지민, 배효섭, 오진민

윤세영, 이진형, 이채은

이현석, 정재필, 정채민

조명희, 한빛

그리고 미카엘 아히폰-리

드라마터그 박지선

프로덕션 PD 오득영

프로덕션 매니저 김보경

리허설 디렉터 이채은, 이현석

무대 디자인 김윤하

무대 제작 길종상가

조명디자인 강정희

의상 황새삼

음악감독 이민휘

연주 서경수, 최태현

공연영상 정승규

촬영감독 정영삼

음향감독 안세운

무대감독 김인식, 김미성

웹 임오성

그래픽디자인 김로아

사진 김세현, 오석근

영상 세시(3c)

Thanks to 미진호프 어머니, 도깨비시장 어머니들

문어 어머니, 유지현, 서예원, 이경미, 강현종, 정이삭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

예술창작본부 본부장 김영호

대학로센터실 실장 남미진

| 대학로극장 퀴드

공연기획팀

팀장 안미영

제작PD 강민정, 최영한, 조성현

AD 김명주, 장정연

티켓 오새현

홍보 박솔기

하우스 매니저 이수인, 허소정

하우스 안내원 강민지, 김서연

김채은, 양유라, 양정선, 이정서

임채린, 최보슬, 최세리, 한혜리

허민영

무대기술팀

팀장 이정욱

무대감독 정태환, 강지훈, 이종훈

조명감독 피울서, 장재영

음향감독 김소희, 빈동준

댄스필름 (ver.2021)

<2022 휘이잉>의 영상은 2021년 제작된 댄스필름 <휘이잉>과 2022년 추가 촬영본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안무 송주원 퍼포머 김소은, 김윤하, 김은이, 모지민, 윤세영, 이수연, 이승아, 임정하, 정주령, 정재우, 한빛, 허준환, Roger

움직임 리서치 나연우 영상 협력 연출 김윤하, 백윤석, 양아치 촬영 백윤석, 김수민 편집 백윤석 음악감독 이민휘 <튼> 음악 최태현

유포니움 신원정 첼로 이호찬 드럼 서경수 현장 사운드 녹음 이제한, 이건희, 이민휘 영화 미술 김윤하 의상 아리

현장 진행피디 정재원 현장 진행스텝 고은비, 서예원, 유지현 프로젝트 피디 오득영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김보경 웹 임오성, 오경섭

스페셜 게스트 보광동 주민분들

2022 **희이영**



서울문화재단



QUAD
서울문화재단 대외로극장